

바이든 '사퇴압박' 최고조... 해리스 부통령 '플랜B' 급부상

트럼프와 지지율 격차 확대

TV토론 이후 당내 지지 균열
"바이든 떠나라" 공개요구 확산
'대체 0순위' 해리스 논의 시작
바이든 선거자금 승계 가능해
젤렌스키도 트럼프 당선 의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한 대통령 선거 후보 사퇴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지난주 충격적인 TV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격차는 더 벌어졌고, 민주당에 선 바이든 후보 지지를 놓고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에 대한 트럼프의 우위가 확대됐다"며 "트럼프가 바이든에 6%포인트(p)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48% 대 42%라는 조사 결과는 WSJ가 2021년 후반부터 집계하기 시작한 양자 대결 가운데 가장 큰 격차다.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사퇴에 대한 공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라울 그리헬

'바이든 대안' 거론되는 민주당 인사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 미국 최초 여성·흑인·인도계 부통령 - 러닝메이트로 바이든 정치자금 승계 가능 - 낮은 인기·능력 부족 논란 걸림돌	- 민주당 인사들 중 가장 인기 높아 - 힐러리 클린턴 전례에 출마 거둬 부인	- 낙태권·총기규제 등 민주당 지지자 선호 이슈 옹호 - 노숙자·범죄 등 캘리포니아 문제 걸림돌 - 올해 아닌 차기 대선(2028년) 노릴 가능성	- 코로나19 팬데믹 공격적 대응 인기 - 2028년 대선 겨냥 관측	- 하얏트 호텔 소유 프리츠커 가문 상속자 - 선거운동 자금 압박서 자유로워 - 당내 진보진영 지지 미저수

버 하원의원은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 책임의 일부는 이 경쟁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엔 로이드 도겟 하원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우리 가장 강력한 후보와 함께 가야 하는데, 대중은 그게 바이든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사퇴 요구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약시오스는 민주당

의원들을 인용해 "담이 무너지고 있다. 너무 많은 사람이 그가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바이든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 초안이 의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 후보로 급부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만간 그를 대체할지도 모른다"면서 "주요 기부자들이 부통령에 회의적이지만 해리스는 민주당 내 지지 기반

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CNBC방송도 소식통을 인용해 "해리스 측근들이 바이든이 경선에서 물러나고 해리스가 출마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비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사퇴 시 민주당 주요 기부자들과 부통령을 위한 회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됐다. 해리스는 바이든의 러닝메이트여서 바이든과 해리스 이름으로 모금한 선거자금 2억4000만 달러(약 3300억 원) 승계가 가능하다.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도 대체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은 아직 출마 가능성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바이든 행정부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마저도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만나 그의 팀이 하는 제안을 들을 준비가 잠정적으로 됐다"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이진영 기자 min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출마 포기 여부를 둘러싼 워싱턴 정가의 논쟁이 월가로 번져가고 있다. 투자자들은 언제라도 바이든 대통령의 깜짝 퇴진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서둘러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 펀드 매니저는 바이든 사퇴 결정으로 인해 촉발될 위험 급등에 대한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달러와 미국 단기 국채 비중을 늘렸다고 밝혔다.

미국과 약 1만 마일(약 1만6000km) 떨어진 호주 시드니에서도 비슷한 대비가

바이든 퇴진론에 월가 대책은 '달러·美단기채 투자'

이뤄지고 있었다. 로드리고 케트릴 호주 국립은행(NAB) 전략가는 "바이든 캠프 철수를 대비해 모든 사람이 거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니 골드버그 TD증권 미국 국채 전략 책임자는 "시장은 토론 이후 이미 선거 확률을 재조정해왔다"며 "최근 뉴스는 불을 지폈을 뿐이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시장은 지난주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TV 토론회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펀드매니저는 위험 헤지 수단 선택
美국채시장선 트럼프 복귀에 무게
은행·헬스케어·에너지株 자금쏠려

의 백악관 복귀를 점치면서 달러, 미국 국채와 기타 자산으로 자금을 옮겨왔다. 특히 두드러진 변화는 채권시장에서 나타났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단기 미국 국채를 매수

하고 장기 국채는 매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재선 성공 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과 헬스케어, 에너지 관련 주식에도 자금이 쏠리고 있다. 미국 최대 의료보험·헬스케어 기업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UH)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신용카드업체 디스커버파이낸셜서비스와 캐피털원파이낸셜 주가도 강세를 보였다. 에너지 주

식도 트럼프가 석유 친화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TV 토론회 이후 상승했다.

시장분석업체 세븐스리포트의 톰 에세이 설립자는 "공화당 대선 후보가 기업 친화적인 것으로 여겨지면서 지난주부터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교체 전망이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테파니올레트 FRNT파 이낸셜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정치권의 혼란이 가중될수록 비트코인에는 더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평범한 날들이
더 행복하도록

국민이 바라는 집과 도시를 국민의 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정의선 '품질경영' 결실... 다음 목표는 '미래모빌리티 선도'

글로벌 누적 생산 1억대를 달성한 현대자동차는 이제 글로벌 완성차 3위 자리에 우뚝 섰다. 경쟁 업체의 뒤를 쫓는 '패스트 팔로어(추격자)'였던 현대차는 이제 시장을 이끄는 '퍼스트 무버(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대차의 역사는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자본금 1억 원을 들여 현대자동차주식 회사를 세웠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제작할 기술은 부족했다. 이에 현대차는 1968년 포드와 손잡고 미국에도 없는 유럽 포드의 코티나 2세대를 조립 생산하며 본격적인 완성차 생산 시대를 열었다.

미국 포드의 차를 조립 생산하던 현대차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포드를 제친 지 오래다. 2000년 글로벌 10위에 불과했던 현대차는 2010년 포드를 제치고 처음으로 상위 5위에 진입했다. 2020년 4위에 오른 뒤 2022년 처음으로 3위에 진입했다. '반짝' 기록이 아니었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전 세계에서 730만 4000대를 판매하며 2년 연속 3위 자리를 지켰다.

현대차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는 동시에 해외 공장 설립에 따라 생산능력이 확대되면서 판매 대수가 급격하게 늘었다. 현대차의 누적 판매 대수는 1986년 100만 대, 1996년 1000만 대, 2013년 5000만 대, 2022년 9000만 대를 돌파했다.

1968년 자동차 판매를 시작한 후 5000만 대를 판매하기까지 45년이 걸렸다. 그러나 이후 5000만 대를 추가 판매해 누적

2010년 포드 제치고 첫 빅5 진입
2022년 이어 2년연속 3위 지켜

美 JD파워 '내구품질조사' 1위
싼차 이미지 벗고 '기술력' 인정

10년간 年 11조 대규모 투자
'미래모빌리티 기업 진화' 속도

1억 대에 이르기까지는 1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무려 34년을 앞당긴 것이다.

단순히 판매 대수만 늘린 게 아니다. 정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으로 넘어온 '품질 경영' 철학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원동력이 됐다.

미국 시장 진출 초기인 1990년대만 해도 현대차의 자동차는 '가성비'로 통했다. 싼값에 타는 차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미국 시장조사업체 제이디파워(J.D.Power)가 실시한 '내구품질조사'에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위에 오르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품질로서 인정받고 있다.

2015년에는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를 출범하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제네시스는 출범 8년 만인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 100만 대를 넘어서면서 현대차의 1억 대 판매에 큰 역할을 했다. 매년 20만 대 이상 팔리고 있는데 이미 닷산인 피니티, 혼다 아쿠라 등 경쟁 업체의 고급

브랜드를 뛰어넘었다.

현대차는 이제 완성차 기업을 넘어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하겠다는 포부다. 내연기관부터 쌓아온 기술력과 사업 노하우를 활용해 전동화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차는 10년간 연평균 11조 원 수준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동화 전환을 추진하고 2030년 20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겠다는 목표다. 이같은 목표 달성 시 미국과 유럽, 한국 등 주요 지역에서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상회하는 5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전기차뿐 아니라 로보틱스, 자율주행, 미래항공교통(AAM),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수소 생태계 등 다양한 신사업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을 넘어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강문정 기자 kangmj@

현대차 글로벌 생산능력 (2024년 상반기 기준)

※ 출처: 금융감독원

국가	생산능력(대)	가동률(%)	국가	생산능력(대)	가동률(%)
한국(울산)	140만		미국	30만	100.3
한국(아산)	30만	107.5	체코	35만	103.1
한국(전주)	10만5000		러시아	30만	-
인도	75만	102.1	브라질	15만	87.7
튀르키예	10만	105.2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전경.

사진제공 현대차그룹

글로벌 곳곳에 미니 생산기지 '다차종 소량생산' 전략 펼친다

전기차 시장 변화에 빠른 대응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등
미니공장 프로젝트 추진 중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를 넘어선 현대자동차의 생산전략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4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생산전략이 현재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중장기적으로 '다품종 소량생산(현대차는 유연 생산이라고 호칭)'으로 전환된다.

완성차 제조사는 소품종을 대량으로 만들 때 이익이 커진다. 부품을 대량주문하면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고, 공장 가동 효율도 높아진다. 하나의 라인에서 여러 차를 만들 때보다, 한 가지 차를 반복해서 빠르게 생산하는 게 유리하다. 조립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고 시간당 생산량인 'UPH(Unit per Hour)'도 늘어난다. 한 때 연산 800만 대를 외치며 양적 성장을 추진했던 현대차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정몽구 명예회장의 '품질경영'에서 정의선 회장이 주도하는 '질적 성장' 시대로 변화하면서 생산전략도 점진적으로 개선됐다. 맹목적으로 많이 만들

전략을 세웠다.

무엇보다 전기자동차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생산 시스템도 전환기를 맞았다는 평가다. 글로벌 곳곳에 세운 현대차 공장(기아 포함)은 모두 1997년 준공한 아산공장이 모태다. 아산공장 설계를 가지고 미국과 브라질, 아시아, 유럽 곳곳에 공장을 세웠다. 대량생산에 유리하지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단점이다.

이에 현대차는 미니공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 주룽 단지에 들어선 '현대차그룹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다.

총 넓이 9만㎡로 축구장 6개 크기에 지상 7층 규모인 이곳은 자동차 주문부터 시승, 인도 및 서비스까지 실증하는 개방형 혁신기지다.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패널 등도 구축한다. 무엇보다 연산 3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조립공장도 갖췄다.

전기차 시대를 맞아 하나의 전용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양한 차종을 생산할 수 있는 만큼, 다품종 유연 생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모두가 부러워하는

실력을 갖기 위해

1,532시간을 투자했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당신의 투자 문화가 된다

NH투자증권

거시경제·금융 정책통... “가계부채·PF 해결 책임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경제 전반 능력·리더십 뛰어나
기재부 차관까지 ‘초고속 승진’
OECD 근무, 국제적 감각 갖춰
최상목 부총리와 오랜 기간 호흡
임명땀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경제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책임자라는 평가다. ‘70년대생’으로 임명될 경우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되지만 리더십과 위기해결능력은 누구보다 탁월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장 가계부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밸류업 프로그램 안착 등 굵직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장으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 시절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출발이 빨랐던 만큼 승진도 앞섰다. 1993년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 후보자는 재경원 동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서기관을 달았다. 차관 승진 때도 1급을 건너뛰고 바로 승진했다. 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4·10 총선 이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이진숙(왼쪽부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자리하고 있다.

임자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34회)과 무려 3기수 차이였다.

탁월한 업무 능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사무관 시절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금융정책국에 몸담으며 금융 정책 경험을 쌓았던 김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기재부 내 정책 관련 핵심 보직을 맡으며 경력을 쌓았다. 이 기간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했으며 STX그룹, 현대

그룹, 동부그룹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도 관여했다. 미주개발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무하면서 국제적 감각도 갖췄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를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발표하면서 “재경부와 기재부에서 금융정책과 거시경제정책을 맡은 정통관료”라면서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과 정책조율 능력, 위기대응능력을 겸비했고 금융과 거시경제 전반에 탁월한 식견을 가져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고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

진할 책임자”라고 소개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내는 등 현 정부의 경제 정책 기초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과도 이미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대통령실 경제수석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함께 일한 것. 또 최 부총리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맡았던 2013년 김 후보자는 자금시장과장이었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의 막내 이복

현 금융감독원장(서울대 경제학과 91학번)의 1년 대학 선배라는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은 표면적으로는 협력을 강조해왔지만 수시로 ‘불협화음’을 일으켜 왔다. 이 원장이 정부 금융정책의 ‘스피커’ 역할을 자처하면서 금융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김 후보자가 새 수장으로 등장함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 간 관계설정도 다시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금융당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현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쌓아온 만큼 힘 있는 금융위원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경력이 없지만 사무관 8년을 모두 금융정책국에서 보낼 정도로 금융 관련 인재로 꼽힌다. 다만, 김 후보자는 1971년생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위로 개편된 이래 최연소 위원장으로 기록된 제4대 신재운 전 금융위원장(55세)보다 젊다. 금융위 국장급 이상 간부 중에서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김 후보자보다 나이가 많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임기 끝난 공영방송 이사 물갈이 예고 방통위 정쟁... 주요정책 ‘공회전’ 우려

李 방통위원장 후보자 앞날은

인앱결제·단통법 등 현안 뒷전
방문진 이사 교체 후 사퇴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내정했다. 방통위는 정치권의 정쟁 대상으로 전락하며 13개월간 수장을 세 차례나 교체했다. 이로 인해 인앱결제 강제 법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같은 시급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며 업무 마비에 처하게 됐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담합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갈등을 해결해야 하지만, 수장이 교체되면서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4조 원대 과징금을 예고했다.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앞세운 1순위 해결과제는 공영방송 개혁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된 후 많은 시간을 할애해 공영방송 이사교체를 비롯한 공영방송에 대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바이든 날리면’, ‘청담동 술자리 보도’, ‘김만배 신학림’ 보도 등을 언급하며 “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나온 보도들로 가짜 허위 기사들이다. 정부가 방송장악을 했다면 이런 보도가 가능했겠나”라면서 “특정 진영, 특정 정당에선 이 정부가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공영방송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

는데 임기가 끝나면 마땅히 새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임기가 끝난 공영방송 이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야당 공세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야당은 방송장악을 이어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씨는 MBC 세월호 참사 오보 책임자, MBC 노조 탄압의 주역”이라며 “특히 MBC 사영화를 밀실에서 추진하다 들롱났던 적도 있다는 점에서 MBC 장악용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선임된다 하더라도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야당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전 위원장이 공영방송 야권 이사 해임과 보도채널 민영화를 밀어붙인 것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고 이전 위원장은 탄핵표결이 다가오자 사의를 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전 위원장이 해결하지 못한 YTN 최대주주 변경을 허가한 데 이어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야당이 탄핵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 후보자도 방문진 이사 교체를 마무리 짓고 자신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접미한 정쟁 때문에 유료방송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기재부 요직 두루 거쳐... 尹정부 예산 편성 총괄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4일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 예산·정책통으로 거론된다. 특히 환경분야 예산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강원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를 거쳐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로 공

직에 입문한 김 후보자는 기재부 노동환경예산과장, 공공혁신기획관, 재정성과심의관, 부총리비서실장,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2차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예산실장 시절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고, 기재부 2차관을 지내며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나라 살림 전체를 총괄했다. 과학환경예산과 서기관과 노동환경예산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환경정책의

경험도 쌓았다. 우리나라에 압축천가스(CNG) 버스를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 환경·사회 분야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균형감 있는 환경 정책을 펼 책임자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평가다. 김 후보자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고향인 강원 원주에 출마했지만, 지역구 현역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격의 없는 소통을 즐기는 외유내강형 관료로 알려져 있다. 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

인사혁신처 연원정 기재1 김범석 농식품 박범수 문체1 용호성

차관급 인사 7명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을,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연 처장에 대해 “28년간 인사혁신처 등에 근무하며 공무원연금 개혁,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공무원 노조와의 정부 교섭 타결 등을 끌어낸 인사행정 전문가”라며 “범정부적 시각과 이해관계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공직사회 혁신을 이끌어 갈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기재부 1차관에 대해서는 “거시경제, 국제금융 등 풍부한 정책 경험을 토대로 물가 등 경제 지표를 안정적으

로 관리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김 1차관은 거시경제 정책 전반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사로 꼽힌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거쳐 미국 뉴욕대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물가정책과장, 재정기획과장, 지역금융과장 등의 보직을 맡았다. 특히 정책조정국장 시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전략인 ‘신성장 4.0’의 토대를 마련했다. 지난해 7월 차관보로 승진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이번 인사로 기재부에 복귀하게 됐다.

대통령실은 박 농식품부 차관과 관련해선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축산정책국장, 차관보 및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 등을 거친 정통 농정 관료”라며 “정책 경험이 풍부하고 이해관계 조정 능력 및 추진력이 뛰어나, 농정 분야

국정 과제의 적극적인 이행과 함께 당면 현안인 농식품 물가 관리에 적임자”라고 전했다.

용 신임 문체부 1차관은 1967년생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경희대에서 예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5회로 30여 년간 문화예술포럼, 콘텐츠 및 홍보 등 문체부 업무 전반에서 정책 경험을 두루 쌓은 관료다. 대통령실은 “1차관 소관인 문화예술 정책 분야에 풍부한 실무경험과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글로벌 문화강국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차관급 인사에서 농촌진흥청장에 관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자금·인력 부족... 中企, 탄소규제 대응커녕 '출구없는 터널'

#. "우리같이 작은 기업들이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습니다. 인력 난도 해결 안 되는데, 환경 규제까지 대응해야 한다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애초에 정부와 대기업이 미리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도와줘야만 대응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제 대응을 위해선 돈도 필요하고 전문 행정인력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이건 작은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과제를 담당 해내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CBAM 규제가 2026년부터 시행되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이 규제에 대응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중소기업 특성상 자금, 인력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서 전문 행정인력을 배치하기도 쉽지 않다. EU CBAM이 시행될 경우 출구 없는 터널 속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하소연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규제 대응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비용 부담을 꼽았다. 실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235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수출중소기업 CBAM 및 탄소중립 대응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중소기업의 10곳 중 3곳은 비용부담(31.1%)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 다음으로 정보 부족(30.2%), 탄소배출량 측정·검증(23.6%), 전문인력 채용(8.1%) 등 순으로 답했다.

김재율 코아테크시스템 대표는 "우리같은 중소기업이 유럽 CBAM 규제 대응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 문제"라며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경기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돈까지

비용부담·정보부족 등 애로 소규모 사업장 실질적 대처 못해 매출 줄고 국제경쟁력 잃을수도 세분된 정부 정책적 지원 절실

써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막막한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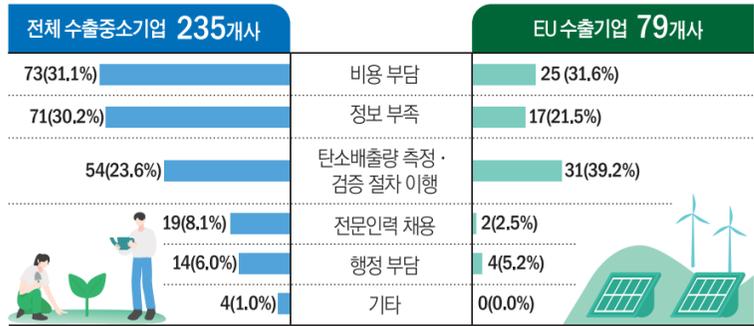
김 대표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인력 인프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전문 행정인력을 써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대우도 마땅히 해주어야 하는데, 대우를 위한 비용조차도 부담스러운 게 중소기업들"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결국 돈과 인력, 시간이 모두 필요한데, 이는 연구개발 과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라며 "특히 지금은 6대 품목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다양해질 것이고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조차 하지 못할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기업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전체 수출의 약 55%가 유럽 수출인 영신특

CBAM 대응 애로사항 설문조사 (단위: 개사)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강은 규제가 시행될 경우 많게는 매출의 50% 이상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EU CBAM 대응이 필수이지만 인력, 자금 모두 부담이 되고 있다.

박성수 영신특수강 대표는 "특수강 주조 회사로서 1600도 가까이 온도를 올리기 위해 전기에너지로 전기 용해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체 사용 에너지의 80% 이상이 공정에서 소비되고 있다"며 "여기서 탄소가 배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BAM 대응을 제대로 못 할 경우 매

출의 50% 이상이 줄어들 수 있고, 향후엔 국제 경쟁력도 잃어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이런 중소기업들의 공통적인 인력, 자금, 시간 부담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별 직접배출·통제 범위 내 간접배출(scope 1·2)까지 구축할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통제 범위를 벗어난 간접배출(scope 3)에 있어서 외부 자원(원자재, 부자재 등)의 탄소발생량

에 대한 국가적인 표준데이터(전구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추가로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탄소 다배출 공정의 단순 공정 전환·설비전환·에너지전환을 넘어 공정에 대한 R&D 부분이 필요하다"면서 "추가로 중소기업의 인력 추가 확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FEMS(factory management system)에 탄소배출관리(Carbon management) 개념을 추가해 개발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의 보다 세분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대표는 "정부 측에서 원생산지인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일종의 TF팀을 만들어 중소기업들이 표본데이터를 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CBAM 대상 필요 업체들을 군집시켜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한 CBAM 전용산업공단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수출중소 '온실가스 비용' 혼란 불가피 종합대책 필요... 친환경 투자 고민할 때"

김기만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위원



체적인 생각과 방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도 일종의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고민을 넘어 파급효과로 인한 간접적인 부분 등 종합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김기만(사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종합적으로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 그리고 친환경 산업을 범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정책적으로 다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포함해 수출 기업에 대해 총력을 기울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 기업과 연결고리를 이루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대책 등 더 폭넓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아직은 직접적인 것에 머물러 있고, 실제적으로는 그것만 해도 복잡하고 힘든 게 맞다"면서도 "직·간접적인 부분 등을 같이 놓고 하나의 CBAM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고, 이제 시작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업들이 받을 직접적인 영향 외에도 많은 파급 효과들이 예상된다"며 "수출 기업에 납품하는, 공급망에 몰려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이 약 10만 개 된다고 하는데, 이들이 모두 영향권에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 한다"며 "비용 전가라고 하면 조심스럽지만, 물건 가격이 변화하면 납품 기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얼마나 구

내부적인 체제 준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CBAM은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한국 제도를 통해 적정한 온실가스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만큼 감해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국내 제도를 잘 설계해서 해외에서 인정받으면 조금 더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보다 실행적인 측면으로 나중에 기업 현장에서는 실측하고, 보고하고, 어떤 형태로든 비용이 발생하는 순간이 오면 혼란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U의 조치가 창출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어려워질 상황과 파급 효과를 이야기하지만,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잘 준비된 기업은 오히려 성장할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조치가 발표되면 유럽의 바이어가 중국 업체에서 한 국내 친환경 패킹 기업으로 갈아탔다는 실제 사례도 접했다"며 "친환경에 투자해왔던 기업에는 오히려 비즈니스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에너지로 세계를 만나는 곳!
 한국수력원자력 미래 에너지 리더 모집!
 YOUR TURN TO THE WORLD
 한국수력원자력주

<2년간>

“서울 집값, 물량으로 안정화... 非아파트 12만가구 짓는다”

국토부, 주택공급 점검 회의

“부동산 시장 안정, 공급이 중요” 하반기 2만가구 신규택지 지정 31만가구 3기 신도시 조성 박차 도정법 등 입법 조속 통과 집중

정부가 올해 비(非)아파트 공급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계획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 하반기 중 수도권 인근 2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발표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앞으로 2년간 비아파트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31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시장 내 충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규모 공급으로 시장 내 주택 공급 우려가 해소되고, 주택담보대출 규모 제한도 계속되면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 전망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서 민관 합동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점검했다. 진현환 국



진현환(앞줄 왼쪽 두 번째)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서 열린 '주택공급 및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건설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요는 상당히 늘었지만,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43만 가구 규모였지만, 올해는 5월까지 인허가 물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연내 신규택지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앞으로 2년간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LH와 HUG의 ‘든든전세주택’은 하반기 85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는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에서 총 1만 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세부 계획과 관련해 김 실장은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은 예년과 비교하면 많은 물량으로 12만 가구가 원활하게 공급되면 최근 공급 우려는 많이 해소된다”며

“신규택지 2만 가구는 서울과 근거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발굴 중이며 이른 시일 내 후보지 발표 일정을 공개할 것이다. 시장에 발표되면 직접적인 주택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 조성상황도 세부 사항을 공개해 시장 내 주택 공급 불안 해소에 나선다. 김 실장은 “3기 신도시 8곳 중 5곳은 많이 진행돼 하반기부터 본격착공에 들어간다”며 “앞으로 착공과 지구 지정, 착공, 분양 일정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

한 ‘도시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과 ‘소규모주택정비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의 입법회를 서둘러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집중한다.

이렇듯 정부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이어가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실장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선 부동산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는 부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 등의 유동성 영향”이라며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총 31만 가구로 많다. 공급이 가시화되면 국민이 볼 때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내년까지 약 4만 가구가 공급되는데 이는 10년 장기 평균치인 3만8000가구와 비교하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비아파트 공급량이 적지만, 수도권에 든든전세주택 약 8000가구가 공급되면 서울 집값의 추세 상승이 둔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학교육 질 저하? ... 의평원장 발언 유감”

교육부, 의대교육 브리핑

안덕선 원장 언론 인터뷰에서 “증원되면 수련 질 저하” 주장

오 차관 “교수 1명당 학생 1.6명 막연하고 근거없는 주장” 반박

의사로 이사회 편중된 의평원 정부 요청사항 신속이행 압박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 및 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교육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장에 대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안덕선의 의평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의대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으로, 의학교육계가 2004년 자체적으로 만든 기관이다.

의대는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오 차관은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하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 등 막연하고 구체적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해 증원 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지만, 현재 40개의 의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해 교수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본과 임상실습 등을 담당하는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투자하겠다”며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증원 정책으로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나 교육 질 저하 우려가 두드러지는 충북대(49명→200명)의 경우에도 추가 교수 배정, 의대 1·2호관 리모델링 등으로 추가 공간을 확보해 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임종윤·종훈> <송영숙·임주현>

형제서 모녀로... 변심한 신동국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3라운드

송·임, 신 회장에 사이언스 지분 매각 공동의결권 약정, 지분 48.19% 확보 ‘오너→전문경영인 체제’ 재편 공식화

한미약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송영숙·임주현 모녀 의지주사한미사이언스 지분 매각으로 개인 최대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를 맞이할 것이라 관측이 유력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전날 송영숙·임주현 모녀와의 해결권 공동행사약정 계약을 맺고, 그룹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모녀로부터 한미사이언스 주식 44만 4187주(6.5%)를 사들인 신 회장 지분은 18.92%로 늘어나며 모녀가 보유한 지분(15.86%)에 직계가족과 후호지분까지 더해 총 48.19%의 지분을 확보했다.

올해 3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임종윤·종훈 형제의 손을 들어줬던 신 회장이 모녀 측으로 돌아서면서 형제는 약 3개월 만에 다시 위기를 맞았다. 신 회장과 송 회장 측은 기존 오너 중심 경영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형제의 손에 넘어간 경영권을 되찾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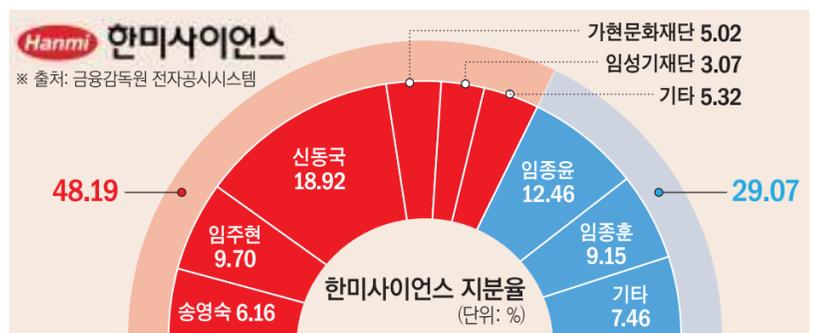
앞서 임종윤·종훈 형제는 가족간 협력과 화합을 토대로 그룹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대화에도 경영권 분쟁의 시발점이 됐던 대규모 상속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결국 모녀 측이 신 회장에게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2020년 별세하면서 가족들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총 5400억 원에 달한다. 현재 모녀에게 남은 상속세는 약 1600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이번 지분 매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모다.

모녀와 형제 사이 갈등의 골이 메워지지 않았다는 정황은 주총 이후에도 포착됐다. 형제의 주총 승리 후 한미사이언스는 4월부터 송영숙·임종훈 공동대표 체제를 꾸렸지만, 40여일 만에 임종훈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달 열린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서는 임종윤·종훈 형제를 포함한 4명의 형제 측 사내이사가 진입했다. 그러나 이후 이사회를 통해 임종윤 이사가 한미약품 대표로 선임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모녀 측 사내이사가 6명으로, 형제 측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점이 이유로 보인다.

현 상황에서 임종윤 이사가 법적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아직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빌드업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빌드업은 함께 미래를 생각합니다
 서로의 속도가 달라도 함께 밀고 당기며
 더 가치 있는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지구를 아끼는 그린에너지,
 새로운 소재로 진화하는 배터리,
 생명을 살리는 바이오 기술,
 미래를 오늘로 만드는 Si와 반도체까지

**SK와 파트너들의 원팀 플레이로
 내일을 빌드업 합니다**



교육·과기·고용?... '장수 장관' 이달 추가 개각 거론

韓총리 유임 사실상 확정 분위기 국조실장·공정위원장은 교체설 복지부 의료개혁·행안부 경찰인사 현안 해결 위해 장관 유임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께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3명의 장관급 인사를 시작으로 개각 작업을 본격화한 만큼 조만간 후속 개각을 이어가 3년 차 국정 운영 쇄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이후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이 마무리되는 인사를 순차

적으로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분위기 전환과 소통 강화를 위해 개각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며 "정부 출범 후 2년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 있고, 각 부처 분위기도 바뀌 소통하고 민생에 다가가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당시 정치권과 관가에선 정부 출범 때부터 함께 해온 '장수 장관'들이 개각 명단에 대거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같은 해 말 임명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

됐다. 장관급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거론됐다. 취임 2년을 앞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교체설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수장 교체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추가 개각은 과기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등을 핵심 축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현안 해결 등 숙제를 안고 있는 일부 장관들은 유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의료 개혁 문제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상황이 어느 정도 매듭지어질 때까지 교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소관 부

처 장관이 교체되면 개혁 추진에 자칫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여러 정치권 인사들이 허마평에 올랐지만, 경찰청장 임기와 이후 경찰 인사,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와 관련한 수습 및 안전 대책 등을 감안하면 교체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유임은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다. 앞서 한 총리는 4·10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통령실은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22대 국회가 여소어대인 상황에서 국회 인준을 받을 만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유임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총선 이후 개각이 지연되면서 집권 후반기 국정 쇄신과 동력 회복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지만, 속도보다는 적합성에 초점을 두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류다. 이에 새로 만들어지는 저출생 대응 수석 인선 역시 후보군을 폭넓게 열고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기 위해 현재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저출생 문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이기 때문에,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필요한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하라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무기명 무기투표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元 "총선 패배" 직격에 韓 "선대위원장이셨죠"

원희룡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4일 '총선 패배 책임론'을 꺼내들자 경쟁주자인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 역시 전국 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이셨다"고 맞받았다.

원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한 후 총선 전망이 어두울 때 우리에게 위기에 빠진 당을 구원할 비대위원장 선택지가 들어 있었다"며 "많은 사람이 경험 많은 원희룡에게 맡겨야 한다고 했지만, 선택은 한동훈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 선택의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다"며 "만약 작년 12월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고 물었다.

원 후보는 "그때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았다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대통령과 의견이 달랐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충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00년에 당에 들어온 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공천 파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공천을 얼마나 조심해서 잘 다뤄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원 후보는 "이제 다시 선택의 시간"이라며 "당이 그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당 대표를 놓고 원희룡이나 한동훈이나 또다시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과 두달 여전에 크게 실패한 사람에게 또 맡겨서는 안 된다. 대통령과 또다시 충돌할 당 대표를 뽑으면 안 된다"고 한 후보를 정조준했다.

이와 관련해 한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을 찾아 유정복 시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네거티브 인신공격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다"면서 "당내 선거에서 제가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드리겠다"며 "지금 나경원, 원희룡 후보 역시 전국 선거 공동선대위원장이셨고, 윤상현 후보는 인천 총괄선대위원장이었다"고 했다.

이민희 기자 nanch0907@

당정 "기업 세제, 부담 아닌 인센티브 역할해야"... 민주 "부자감세"

국회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 구간 단순화 등을 적극 검토해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힘을 실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세제가 기업에 부담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부자 감세"라며 막아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 "기업 세제는 기업이 정신을 깨우고 혁신을 유인할 국가적 수단임에도 그간 역할에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3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언급하며 "대부분 입법과제인데 다 이해 갈등이 큰 정치의 영역"이라며 "정부 혼자 의지만으로 힘들기에 국회의 협조와 경제계의 적극적 목소리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

정부 "배당 늘린 기업 법인세 인하 국회 협조·경제계 호응" 당부
한경연, 최고세율 인하 의견도

野 "부족한 세수 확보 대책 필요" 관련 법안 통과 제동 방침

대,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추진 등 기업 세제 개편 방안을 내놓고 있다.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인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 번 도약하려면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 경영을 지원하는 조세 제도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전략 기술은 당장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시장 선점을 위한 즉각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기술 확보가 경제 성장에 꼭 필요한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3%포인트(p) 추가로 인하는 방안과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뤘다. R&D 투자

등에 대한 기업 세액 공제율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말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과 과표 구간별로 1%p씩 인하됐지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최고세율이 높다"며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세표준 구간은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당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면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부자 감세 로드맵'이었다"며 "기업 오너, 대주주 등 전국민의 1%도 안 되는 거액 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부를 대물림하게 하는 부익부 자세습의 '부자기득권 로드맵'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기업 세제 혜택 항목을 살펴보면 △벤처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5%) △상속세 개편(최대주주 상속세 20% 할증평가 폐지·가업상속공제 제도 폐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벌법) 재입법 등이다. 모두 조세특례

제한법(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낼 전망이다. 진 의장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세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세수 확보대책을 먼저 내놓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의 조율된 입장이 제출되면 그때 당에서 입장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혁신당 조세개혁TF단장 차규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반복되는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현 정부의 조세재정정책과 관련해 "작용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반 부자 감세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소득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시작점을 인하고 전 소득 구간에서의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이민희 기자 nanch0907@

김은재 기자 silverash@

서이원 기자 iwonsoo96@

경영계, 최임위 ‘보이콧’... “勞측 표결 방해 유감”

8차 회의 ‘반쪽 개최’

使측 “지난 회의서 의사봉 뺀 등 방해행위로 차등적용 무산” 주장
공익위원 간사 “있을 수 없는 사태”
일정 파행 오래 지속되진 않을듯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참여를 거부했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8차 전원회의는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용자위원의 불참은 2일 7차 회의에

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데 따른 항의 표시다. 7차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이 표결 건으로 상정되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의사봉을 빼앗고 공익위원들의 투표권을 찢으며 표결을 방해했다. 가까스로 진행된 표결에서 공익위원들이 근로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주며 업종별 구분이 부결됐다.

당시 사용자위원들은 이인재 위원장이 사태를 방관했고, 위원장의 방관 아래 진행된 표결 방해행위가 다른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불참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7차 회의에서 발생한 사태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그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 9명이 모두 빠진 채 ‘반쪽’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부위원장은 “40년 동안 사문화했던 이(업종별 구분) 규정을 해마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불 능력이 없다며 기집어내 논의에 부치고, 결국 임금 동결로 끌고 가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을 촉발하고, 결국 을과 을의 싸움판으로 번져도 정돈할 의지가 없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근로자위원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 표결 과정에서 일어난 일부 노동자위원들의 표결 저지행동의 절박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일부 근로자위원의 폭력은 있을 수 없는 사태”라며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표결 방해에 공익위원들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노·사의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요구안은 이날 회의에서도 제출되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한쪽이 3분의 2 이상 불참하면 최임위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있어 사용자위원들의 보이콧이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초복 앞두고 위생점검 4일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식육 포장처리업체에서 광주 북구청 시장산업과 직원들이 초복(15일)을 앞두고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구는 여름철 닭과 오리 등의 소비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한 달 간 관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자 할 곳 없네... 가계 여윳돈 2배 불어나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 발표
올 1분기 순자금 77조6000억
예금·채권 등 운용 규모 증가

1분기 가계 여윳돈이 작년 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이 유입되는 시기인 데다가 부동산 취득이 줄면서 예치자금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올해 1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77조6000억 원으로, 전 분기(29조8000억 원)보다 크게 늘었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정진우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아파트 분양, 가계의 건축물 순취득 등 가계의 실

물 투자 감소로 여유 자금이 늘어나면서 순자금 운용액이 전 분기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1분기 중 상여금이 대거 유입되는 계절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여유자금이 늘어나면서 예금, 지분증권, 채권 등 대부분 상품의 운용 규모가 증가했고, 특히 해외 주가 상승 기대 등으로 비거주자 발행주식 운용도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1분기 자금 운용 규모는 79조 원으로, 전 분기(39조 원)보다 40조 원 증가했다. 자금 운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의 국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가 지난해 4분기-13조1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 2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 예금 등 금융기관 예치금도 18조4000억 원에서 58조6000억 원으로 불었다.

이에 따라 가계 금융자산 내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비중은 1분기 기준 21.8%로 전 분기(21.7%)보다 소폭 커졌다. 예금 등의 비중도 46.3%에서 46.4%로 늘었다.

가계의 1분기 자금 조달액은 1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비금융 법인의 경우 1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가 1조6000억 원으로, 전 분기(6조9000억 원)보다 줄었다. 금융기관 예치금, 채권 운용 등을 중심으로 자금 운용액(28조4000억 원)이 늘고 상거래 신용 등으로 자금 조달액(29조9000억 원)이 줄면서 순자금 조달 규모가 축소됐다.

정 팀장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반면, 유·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가 지체되면서 여유자금이 늘었다”며 “국내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회사채 발행 여건이 개선돼 채권을 순 발행했지만, 상거래 신용 감소가 이를 상쇄했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반도체 세정용 ‘초순수’ 100% 국산화 기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간담회서 밝혀

한화진(사진) 환경부 장관은 3일 “국산화 화를 위해 열심히 R&D(연구·개발) 중인 초순수(Ultrapur Water) 기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월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환경부가 환경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새 환경 산업 육성에 역할을 한 사례를 소개해달라’는 질문에 “(초순수가) 100% 우리 기술로 개발되면 수질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 생명수’로 불리는 초순수는 유기물·이온 등을 제거한 순수에 가장 가까운 물로, 반도체 웨이퍼(원판) 등 수율을 높이기 위한 불순물 세척에 쓰인다. 현재 초순수는 일본 기업의 국내 점유율이 100%에 가깝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443억 원을 들여 초순수 100% 국산화·소부장 70% 국산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 장관은 “환경기술을 통해 산업이 육성되고 시장이 만들어지면 결국 환경 개선이라는 선순환이 된다”며 “환경기술이 탄소중립 이행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



고, 그게 환경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까지 진행된 새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응모 지자체가 없어 불발, 4차 공모를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4차 공모에서는 3차 때 90만㎡였던 부지면적 축소, 응모 자격 확대, 주민동의율 완화 등이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4차 공모가 불발되면 5차 공모는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는 “4차 공모 성공을 위해 다자가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이 탄소중립을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스전 개발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사용과정에서는 기존 연료를 대체하는 것이기에 추가 배출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추후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영향이 있을지 파악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정효영 기자 moonr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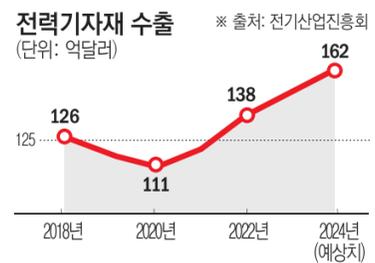
전력기자재 新수출동력으로... ‘무역금융’ 2.7조 투입

정부, HD현대일렉트릭 등과 간담회
AI 열풍에 수요 늘어 수출 우상향
올해 수출 162억달러 목표로 지원

데이터센터 증설 등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늘면서 전력기자재 시장이 ‘슈퍼 사이클’을 맞았다. 우리나라 전력기자재 수출도 급격히 증가해 10대 수출 품목 진입을 넘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정부는 올해에만 2조7000억 원의 무역금융 투입하는 등 전력기자재 산업을 신(新) 수출 동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전력기자재 산업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수출 목표를 162억달러로 설정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경기 성남시 HD현대일렉트릭 본사에서 연 전력기자재 업계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전력기자재 시장 슈퍼사이클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HD현대일렉트릭 조석 대표, 효성중공업 우태희 대표, LS일렉트릭 김중우 사장, 서진하이텍 유은경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과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장영진 사장 등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전선과 변압기 등 전력기자재 수출을 가속하기 위해 무역보험 특별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2조7000억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별도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미, 유럽,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전력기자재 수요가 증가 추세인 지역에 코트라의 전력기자재 중점 무역관을 지정해 현지 프로젝트 수주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제

시했다.

AI 산업 발전에 따른 데이터센터 확충 흐름, 미국 등 북미의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 도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이 서로 얽히면서 최근 들어 전선, 변압기 등을 포함한 전력 기기 산업은 ‘슈퍼 사이클’로 불리는 호황기를 맞고 있다. 전력 기기 수출은 작년 역대 최대인 151억달러로 바이오헬스(133억 달러), 이차전지(98억 달러)를 넘어 한국의 새로운 주력 수출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안 장관은 간담회에서 앞서 HD현대일렉트릭이 세계 최초로 구현한 1메가와트(MW)급 상압용 건물 직류(DC) 배전시스템 전시관을 참관했다. 이와 함께 한전, 코트라, 무역보험공사는 이날 간담회 참석을 계기로 전력기자재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K-그리드 수출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 해외 동반 진출 생태계 활성화와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전력기자재 중점 무역관 지정 및 해외 마케팅 지원 △ 무역보험 공급 확대 등이 담겼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아홉살 때 처음 잡은 라켓, 이젠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

이형택 오리온 테니스단 감독

-테니스 코트를 배경으로 화보 촬영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코트 색깔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괜히 아이돌 된 기분도 들고, 좋았습니다. 하하. 요즘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난해 12월 무릎 수술을 해서 재활 훈련을 하면서 주니어 선수 육성에 매진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테니스 외적으로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어 기분도 환기되고 재밌었습니다.”

-요즘 테니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데 실감하시나요

“동호인, 그러니까 생활체육 쪽에서 테니스가 인기를 끌고 있죠. SNS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쁘고 멋진 옷을 입고 테니스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SNS에 사진을 게재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건강에 좋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시니어분들에게도 테니스 운동을 추천합니다. 전신 운동, 유산소 운동이 되고 테니스를 하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체력이 안 따라준다면 부상당할까 봐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한번 배워보세요.”

테니스와의 운명적 만남

‘축구 실력’으로 들어간 테니스부 한국인 첫 ATP 투어 우승 ‘대기록’ 지금은 주니어 선수 육성에 온힘 예능인·유튜버로 ‘제2의 전성기’

-이 인기는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를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 스텝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테니스라는 스포츠가 더욱 발전하려면 결국 엘리트 선수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스포츠 업계에서는 테니스가 10년 전 골프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박세리 선수 이후 좋은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세계대회에서 이름을 알렸기에 발전할 수 있었죠. 지금 국내에서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이 100만 명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300만 명 이상으로 커지려면 정현, 권순우 같은 선수가 4~5명 정도 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권순우 선수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본인의 의지로 해외 경기에 도전했고 멋진 성적을 냈죠. 정현 선수는 그랜드슬램 4강을 달성했어요. 지금은 부상으로 인해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권순우 선수는 최근 메이저 대회(프랑스 오픈)에서 승리하며 활약을 보여줬죠. 선배로서 두 선수 모두 몸 관리 잘하고, 부상 없이 투어 생활을 오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너무 성적이 연연하지 않고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테니스 불모지에서 어떻게 선수가 되셨나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강원도 횡성군 오천면에서



지금의 대한민국 테니스 열풍 뒤에는 이형택이 있다. 묵묵히 불모지를 개척해 씨를 뿌리고 꽃을 피운 인물이다. 올림픽 4회 출전, 아시안게임 2회 연속 금메달, 한국인 최초 ATP 투어대회 우승, US오픈 16강 진출, 세계 랭킹 36위 등. 테니스 선수로 그가 이룬 기록은 기적에 가깝다. 선수 생활을 은퇴한 그는 현재 주니어 선수 감독으로 테니스와 함께하고 있다. 아홉살 때 테니스를 시작하던 마음을 기억하며, 명맥을 이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중이다.

자랐어요. 어느 날 저희 초등학교 교로 발령받아 오신 선생님이 테니스부를 창단하신 거예요. 멤버를 모집하기 위해 축구 테스트를 하셨어요. 축구를 잘하면 모든 스포츠를 잘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당시 선생님이 제 축구 실력을 좋게 봐주셔서 테니스부에 들어갔고, 그게 시작이 된 거죠. 그때는 정말 테니스에 대해 하나도 모르던 아홉살짜리 아이였어요.”

-선수 생활 기록 중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많은 분들이 ‘타이브레이크의 기적’이라면서 2005년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 경기를 얘기하시죠. 6대0에서 역전승을 거둔 스토리가 포인트 같아요. 당시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통했던 걸까요? 그리고 1998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은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

시 회사가 IMF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면 선수 생활이 그때 끝났을 수도 있어요. 금메달을 따면서 본격적으로 해외 투어를 시작했고 2000년 US 16강 진출도 가능했죠.”

-경기 때 특별한 징크스가 있었나요

“징크스는 아니지만 저는 식당에 가면 항상 앉았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경기하는 날이 아닐 때도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앉지 못하면 괜히 아쉬운

‘테니스 열풍’ 이어가려면

정현·권순우 후배들 활약 뿌듯 부상 없이 좋은 경기 보여주길 엘리트 선수들 더 많이 나와야 테니스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기분이 들곤 해요. 생각해 보니 징크스가 하나 있었네요. 어머니께서 관람하러 오시는 날에는 한 번도 경기에서 이기지 못했어. 그래서 어머니께 오시지 말라고 했는데, 아마 서운하셨을 거예요. 그 징크스를 깨보려고도 했지만 결국 끝날 때까지 깨지 못했죠.”

-테니스 경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건 결국 무엇일까요

“테니스는 매 순간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스포츠예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 관리가 중요하죠. 경기하면서 조금해지는 순간이 와도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텅텅 해지려고 노력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자, 긴장하지 말자고 계속 저 자신과 대화를 하죠.”

-선수 시절과 비교해 체력이 떨어진다 느끼시나요?

“아무래도 근력의 질이 많이 다르죠. 힘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평소에도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리닝도 하면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죠. 테니스장에 있다고 운동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선수가 아니고 지도자잖아요. 여러 명의 학생을 신경 쓰느라 바쁘죠.”

-요즘에도 축구를 즐기시나요

“축구는 체력 훈련 삼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축구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몽쳐야잔다’(JTBC 예능)를 하면서 정식으로 레슨을 받고 기술을 익혔죠. 축구장을 뛰면서 땀을 흘리고 나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요즘은 골프를 취미로 즐기고 있어요. 사실 골프 프로 투어에도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여러 여건상 안 되겠다더라고요. 이제 무릎이 좋아지면 야구, 마라톤 등 새로운 운동에 도전해보려고요.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이니까요.”

-유튜브 채널 ‘머드Lee-이형택TV’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머드Lee’는 제 별명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테니스를 주제로 하는 채널이에요. 정보형 선수와 대결을 펼치는 영상(조회 수 200만 회 돌파)이 가장 인기가 많아요. 시청자들이 제가 경기하는 영상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테니스 치는 분들의 탄탄한 재미있는 영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스포츠 즐기는 모습, 먹방, 일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려고 합니다.”

-테니스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테니스는 제게 동반자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같이 가야죠. 끝이라는 게 없는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경지에 다다르지 못했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제가 올림픽을 4회, 16년 동안 출전했어요. 그런데 메달이라는 성적을 내지 못해 아쉽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잘 견뎠다고 위로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 저는 주니어 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후배들이 좋은 길로 가는 것을 보면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겠죠.”

글/ 손효정 기자 shjlife@ 사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lass가다른 상위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초일류 기술 골프채 부문

- ① 고반발 기술 1위 → C.O.R 0.962 초격차
- ② 경량화 기술 1위 → 드라이버 205g 30% ↓
- ③ 최적화 기술 1위 → 20,684,160 가지 스펙 초격차
세계적인 프로처럼 개개인의 스윙에 딱맞는 스펙의 클럽을 제공



예약제 우선 (본사 매장)
가격 영원 불변 정책



“막연한 낙관 경계...투자 속도조절 필요한 때”

김동명 LG엔솔 사장

하반기 맞아 임직원에게 메시지
“배터리 1등이라는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변하지 않았는지...
전기차 캐즘, 시장의 시각 변화”
‘위기극복’ 기초체력 강화 주문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최고경영자(CEO) 사장은 4일 “과거 자리 잡은 1등이라는 자신감이 자만심으로 변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투자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깊게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하반기를 맞아 구성원들에게 ‘자만심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도전과 혁신의 DNA를 되살리자’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사장은 메시지에서 “‘질적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일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미래를 대비할 근성과 체력을 길러야 할 뿐 아니라 자만심을 버리고 우리만의 도전과 혁신의 DNA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배터리 산업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이 많이 변했고, 배터리 외 산업에서도 ‘최고’라 인정받던 기업들이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하반기를 맞아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자만심을 버리고 우리만의 도전과 혁신의 DNA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LG에너지솔루션

변화의 방향성과 속도에 맞춰 제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LG에너지솔루션) 역시 공격적 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사와 차별화된 글로벌 생산 역량 확보했지만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소재·기술·공정 혁신이 더뎠고, 구조적 원가 경쟁력도 부족해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것을 어려운 업황 탓으로 돌리거나 미래 성장 전망이 밝다는 이유만

으로 막연히 미래를 낙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과거 배터리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며 자리 잡은 일등이라는 자신감이 오히려 자만심으로 변한 것은 아닌지 냉정히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펀더멘탈(기초체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지금까지 공격적인 수주와 사업 확장을 추진하며 인력, 설비, 구매 등 분야에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먼저 시장을 개척하며 생긴 일이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

다. 실패 경험을 자산화하고, 축적된 운영 역량과 결합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금은 투자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기”라며 “꼭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민첩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조직별로 투자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깊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2일 르노 전기차 부문 암페어(Ampere)와 체결한 전기차용 파우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계약과 관련해선 “어려운 시기에 이룬 고무적인 성과이며 이 같은 성공 경험을 하나씩 쌓아 나가야 한다”며 “독보적인 제품 경쟁력과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인정받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르노에 2025년 말부터 5년 간 39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은 “배터리 산업의 미래는 밝지만, 미래를 주도할 진정한 실력을 갖추기는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며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업과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며 조직 전체의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당부했다. 이어 “저부터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힘을 모아보자”고 덧붙였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대한상의 물류위원장에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제49차 물류위원회 를 열고 신영수(사진)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를 신입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물류위원회는 물류업계 최고 경영자(CEO)로 구성돼 있으며 2008년 발족 이래 물류 현안에 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건의 활동을 하며 국내외 물류산업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 신입위원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류산업 관련 지원정책에 업계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 및 물류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활발히 소통하고 우리 물류업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정 기자 kangmj@

디스플레이協, 송파구 회관 입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가 4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관 입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입주식은 서울 송파구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관 아이작뉴턴룸에서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실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등 주요 인사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회는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업무 범위도 크게 확장되면서, 한국디스플레이산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회관을 마련했다. 회관 후보 건물에 대한 경제성 검토 후 4월 매입을 완료했다. 회관은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다. 서울 지하철 3·5호선 오금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다. 회원사 및 정부 세종청사 방문 시 접근성도 우수한 편이다. 1~3층은 외부에 임대하고, 4~7층은 협회 사무공간, 회의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박민용 기자 pmw7001@ 사진제공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김승연 회장, 한화이글스 선수단에 이동식 스마트TV 지급

상반기 5번이나 대전구장 찾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이글스의 승리를 기원하며 선수단 전력강화 및 격려를 위해 선수 개개인에게 ‘이동식 스마트TV’를 지급했다.

4일 한화에 따르면 김승연 회장은 지난 달 27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를 찾았다. 팬들과 함께 경기를 지켜보며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경기 전 김경문 감독과 주장 채은성 선수를 만난 자리에서 최신행 이

동식 스마트TV인 LG 스탠바이미를 선물했다. 지난 상반기 상위권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선수단을 격려하고 하반기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서다.

실시간 전력분석 자료 공유와 개인 훈련 데이터 체크가 중요한 현대 야구에서 선수들은 장소에 구애 받지 않으며 전력 분석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언제든지 구단 인게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히츠(H.I.T.S.; Hanwha In-game Tactic Solution)에 접속할 수 있어 상대팀 전력 분석은 물론, 보다 상세한 개인 연습량 및



김승연(오른쪽 두 번째) 한화그룹 회장이 김경문(첫 번째) 감독과 류현진(세 번째)·채은성(주장) 선수에게 선물을 증정한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한화

자세 분석 등이 가능하다. 올 상반기에만 5차례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를 찾아 현장에서 팬들과 호흡하며 선수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김승연 회장의

애정과 관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전력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성적으로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송영록 기자 syr@

현대엔지니어링, 아이스 캠페인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에 총력



현대엔지니어링은 ‘HEC 아이스’ 캠페인을 통해 혹서기 근로자 온열 질환을 집중 관리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폭염 단계별 세부 가이드 수립 후 현장 내 깃발, 배너 설치, 사이렌 알림, 비상방송을 통해 근로자들이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알림체계를 강화했다. 냉방시설이 가동되는 개방형 휴게시설 ‘아이스 쉼터’를 설치해 시원한 물과 이온음료, 폭염키트를 비치했다. 부지가 넓은 인프라 현장은 순환 차량을 활용해 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동형 휴게시설 ‘아이스카’를 운영한다.

전보규 기자 jbk@·사진제공 현대엔지니어링

롯데홈쇼핑, 서울 구로구 영일초에 11번째 ‘친환경 숲’ 조성

롯데홈쇼핑은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영일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녹지공간 ‘숨·편한포레스트’ 11호를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3일 열린 완공식에는 이동규 롯데홈쇼핑 마케팅부부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인배 서울영일초등학교 교장과 학생대표 18명이 참석했다.

이 학교는 재학생 중 다문화 가정 학생

의 비중이 70%로, 다른 학교에 비해 매우 높다. 롯데홈쇼핑은 학교 시설 개선·녹지공간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일초를 11호 숲 조성지로 선정, 약 한 달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학교 숲을 완공했다. 약 400㎡ 면적에 초화, 교목, 관목 등 총 3140그루를 심고 인조잔디, 그네 의자 등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왼쪽부터 이동규 롯데홈쇼핑 마케팅부부장, 이인배 서울영일초등학교 교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사진제공 롯데홈쇼핑

신한라이프케어, 정재승 교수와 시니어 주거 공간 꾸민다

신한라이프는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가 차별화된 시니어 주거 공간 구축을 위해 카이스트 뇌인지과 학과와 신경건축학을 적용한 시니어 공간 연구계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지난 달 28일 진행됐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및 요양시설 등 시니어 케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신체적·정신적 노화 회복과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시니어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는 “카이스트와의 연구를 통해 개발하는 공간 정체성은 당사가 만드는 시니어 공간의 디자인 철학과 원칙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차별화된 시니어 주거 문화를 구축하고 고객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dove@



우석문(왼쪽) 신한라이프케어 대표와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시니어 공간 연구 협약을 맺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라이프케어

부음

▲김익립 씨 별세, 김태호(해군본부 정훈실장) 씨 부친상, 박원희씨 시부상 = 3일, 대전 건강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5일 낮 12시, 042-600-6666

▲김광현 씨 별세, 김명숙·제정·윤숙·인숙·제홍·제동(전 생명보험협회 전무이사) 씨 부친상 = 3일, 공주장례식장 102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041-854-1122

▲김성욱(방송통신위원회 지역미디어 정책과장) 씨 부친상, 성호선(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산사무소장) 씨 시부상 = 4일, 남해병원 장례식장 102호, 발인 6일 오전 7시 30분, 055-863-5444

▲윤기덕(전 고흥상사 사장)씨 별세, 표경자 씨 남편상, 윤혜련·태석(NHN여행박사 대표이사)·준석 씨 부친상, 현서용 씨 장인상, 이선진 씨 시부상 = 4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40분, 02-3010-2000

문학의 쫓



문원립
동국대 명예교수
영화영상학과

올해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다큐멘터리다. “예상치 못한 손님이 평범한 이라크인 농부의 현 관문을 두드린다 ... 바로 (미군에 쫓기고 있는)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었다.” 이런 유혹적인 로그라인의 영화는 흔치 않다. 안 볼 수 없

었다. 영화는 실망을 주지 않았고 다른 관객들의 반응도 좋았던 것으로 안다. 2003년 4월부터 12월에 체포되기까지 그를 숨겨준 이라크 농부 알라 나미크 (당시 30대 초)의 이야기다. 영화는 대부분 재연으로 구성되었다.

정확히 하자면 그의 문을 두드린 건 그의 형이었다. 손님이 와있으니 같이 가자고 했고, 가서 보니 후세인이었다. 그 동네는 후세인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 이었고, 권력자의 고향 마을이 대개 그렇듯 그의 지지자가 많았다. 알라의 집

거나 실종되었다고 한다. 그런 그도 영화에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다. 알라가 마당에 욕조를 마련해 목욕하게 하고 등을 씻어주자, 그도 알라가 사양하는데 불구하고 그의 등을 닦아준다. 두 아들이 한번 찾아왔었는데 (이 아들들도 망나니로 알려

져 있다) 여느 부자 모습과 다를 바 없었고, 이후에 그들이 미군과의 총격에서 사망하자 통곡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제는 자네가 내 아들이야”라고 했었다.

사담 후세인이 ‘구멍(hole)’에서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봤던 기억이 있다. 자세히 읽지 않은 필자는 그걸 비유적인 표현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영화를 보니 정말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토굴이었다. 비상시에 들어가 숨었다. 화단으로 위장했는데 역시 알라의 숨씨가 돋보였다. 거기 있다는 정보를

〈사담 후세인 숨기기〉, 할콧 무스타파 감독, 2023년작

농부의 눈엔 그저 친구였을 뿐

안에도 후세인 밑에서 요리사 등으로 일한 사람이 여럿 있었다고 한다. 후세인이 집안의 어른을 접촉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물었고, 그래서 알라가 선택된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영화에서 본 알라의 인상은 체격이 좋고 지적이라는 것이었다. 농부에 대한 선입견과 달리, 말을 조리 있게 잘 했다. 후세인의 혈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그다드까지 가서 응급 처치법을 배우고 왔었다. 영화 속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후세인의 주치의였고, 미용사였으며, 경호원이었고, 요리사였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임이 분명하다. 후세인에게 2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렸을 때 후세인이 웃으며 “날 팔 거냐?”고 묻자, 그가 “가격이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농담했다.

사담 후세인은 20세기 최악의 독재자 10명 안에 들어갈 만한 인물이다. 그는 1980년대 후반에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사람들을 수만 명 학살했다. 그의 집권 동안 2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살해되

어려 미군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정확한 위치를 못 찾아 한 시간 이상을 헤맸다. 후세인의 체포를 주도한 수사관의 회고록을 보면 당시 상황이 나와 있다. 비밀을 폭로한 사람은 후세인의 최측근이었던 무함마드 이브라힘이었는데 그는 정확한 위치를 모른 척하고 있다가 어쩔 수 없어 넌지시 알려준다. 말을 하지 않고 발로 슬그머니 흙을 치워 연결로프를 드러낸다.

후세인은 이라크 법정에서 재판받고 2006년 12월에 처형되었다. 그와 함께 체포되었던 알라는 악명 높은 아부그라이브 교도소에서 고생하다가 6개월 만에 풀려났다.

감독 할콧 무스타파는 쿠르드계 노르웨이인이다. 작년 말에 할리우드리포터지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14년 전부터 이 소재에 관심을 가졌으나 알라를 찾지 못했다. 그러다 2012년 워싱턴 포스트지에 그의 근황이 보도된 것을 보고 그와 연결할 수 있었다. 그는 극영화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

부귀한 처지에 놓이면 그대로 처신하고, 빈천한 상황에 놓이면 그대로 살고, 외국에서 살게 되면 그대로 살고, 환란의 상황에 놓이면 그것에 맞춰 살아간다. 자기 주도적인 군자는 어디를 가더라도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없다. 그러므로 자기 주도적인 군자는 편안한 자기 자리에 머물러서 일이 되어가는 형편을 느긋하게 살펴본다. 이기적인 소인은 위험을 무릅쓰면서 행운을 바란다.”

☆ 시사상식 / 그린북(Green Book)

국내의 경기 흐름을 분석한 경제동향 보고서. 기획재정부가 매월 1회 발행한다. 2005년 3월 4일 처음 발행했다. 제호는 미국의 경제동향보고서인 베이지북(Beige Book)의 경우처럼 표지의 색상이 녹색이어서 이 명칭이 붙었다. 내용은 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수출입 등 지출부문과 산업생산·서비스업 활동 등 생산부문, 고용·금융·국제수지·물가·부동산 등 총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이투데이, 말투데이

☆ 장곡도 명언

“우리는 행운을 믿어야 한다.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이들의 성공을 설명할 수 있나.”

프랑스 시인·소설가·극작가다. 일찍부터 파리 사교계에 출입한 그는 러시아 발레단의 세르게이 디아길레프,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화가 파블로 피카소,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 등 전위적인 예술가들과 교류했다. 그는 대성과 무대 장치까지 시도한 다각적인 예술가였지만, 그의 본질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순수한 시인이었다. 대표작은 시집 ‘희망봉’, ‘포에지’. 오늘은 그가 출생한 날. 1889~1963.

☆ 고사성어 / 행형요행

위험을 무릅쓰면서 행운을 바란다는 뜻이다. 중용(中庸) 14장에 나온다. “자기 주도적인 군자는 지금의 자리를 본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의 바깥을 자기 것으로 바라지 않는다.

이슈&인물

‘AI 투자사업’ 출사표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

“독립리서치에서 스타트업 변신중”

리서치알음이 2016년 국내 최초로 여의도에 진출한 독립리서치로 기록된 데 이어 또 다른 도전에 나섰다.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선보인 투자 플랫폼 ‘STOCK9330’은 그 첫발을 댄 행보다.

현재 STOCK9330은 증권가에 유통되는 양질의 정보를 한데 모아 앱에서 ‘추천’ 기능을 제공하는 수준까지 상용화됐다. 리서치알음의 더 큰 목표는 따로 있다. 사내에서 시범 운영 중인 AI 매매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투자 상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리서치알음은 업계에서 독립리서치를 뛰어넘는 위치를 갖게 된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는 최근 서울 여의도 리서치알음 본사에서 진행된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 리서치알음은 연차가 있지만, 독립리서치와 함께 AI 사업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 금융중심지 뉴욕에서 ‘AI 귀인’과 손잡다 =

최 대표와 AI의 만남은 미국 유학 시절에 이뤄졌다. 최 대표는 2007년 유화증권 애널리스트로 증권가에 처음 발 디뎠을 때부터 좋은 수익률을 낼 만한 선진 금융 상품 도입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런 포부를 펼치기에 자신이 가진 정보도, 인적 자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세계 금융중심지 미국 뉴욕으로 떠난 배경이다.

최 대표는 2021년부터 뉴욕대(NYU)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하며 컬럼비아대에서 머신러닝 박사학위를 받은 김성욱 박사와 인연이 닿았다. 최 대표는 김 박사에 대해 “골드만삭스에서 AI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영국 BBC 등을 소유한 미디어 그룹 컴캐스트에서 광고 비딩(bidding) 시스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대표는 유학 당시 미국에서 가장 흥행하던 금융 기술이 AI라고 봤다. 최근 국내에도 AI를 활용한 각종 금융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기술 개발 작업은 금융인 혼자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며 “AI 전문가인 김 박사와 함께 투자에 적합한 AI 알고리즘 개발 작업에 착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STOCK9330은 이런 노력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 중 하나다. 출시 첫 달을 넘긴 해당 앱은 ‘적중률 좋은 리포트’를 쓴 애널리스트들을 선별해 순위별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최 대표는 “2020년부터 취합한 각종 증권사 애널리스트 데이터를 AI에 넣고 학습하도록 한 머신러닝 기술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의 계획은 투자 플랫폼에서 그치지 않는다.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이미 만들어 회삐돈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최 대표는 “연초부터 자체 프로그램으로 국내 증시에 투자해 매

달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AI가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느냐가 AI 투자 수익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리서치알음은 회사 자본으로 AI 매매 프로그램 안정성과 정확성을 충분히 시험한 뒤 이를 기반으로 금융 상품을 만들 방침이다. 가장 빨리 현실화할 가능성이 큰 상품은 랩어카운트다. AI 매매 프로그램으로 종목을 선별한 분산투자 상품을 만들어 증권사에 판매하는 전략이다. AI를 활용한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 수요가 있다고 보고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 ‘AI 매매 프로그램 시범 운용’ 월 두 자릿수 수익률 =

최 대표는 상반기 금융당국에 투자자문업 인가 신청을 마쳤다. 통상 리서치알음을 포함한 독립리서치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사업 등록이 돼 있다.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랩어카운트 상품 등 판매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할 수 없다. 투자자문업자는 가능하다. 투자자문업 인가 심사에 약 20주가 소요되는 만큼, 인가 결과는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최 대표는 그간 그려온 AI 투자 사업 청사진에 자신감을 비쳤다. 최 대표는 “독립리서치계는 물론 여의도에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는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독립리서치와 함께 AI 사업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리서치알음

고를 한 뒤 독립리서치를 세워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인에게 투자 자문을 하려면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문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자 조언을 허용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놓고 유튜브, 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플랫폼을 통해 유료 회원에게 개별 투자 상담이나 자문을 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신고 후 영업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184 곳에 달한다.

◇ “리딩방” 독립리서치, 업계 전반 신뢰 떨어뜨려 =

투자를 빌미로 돈을 받고 잠적하는 유사투자자문업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은 불법 리딩방 주범으로 꼽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색출에 갈을 빼 들었다.

연초 국회는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최 대표는 “우후죽순 생긴 독립리서치들이 내놓은 보고서들이 업계 전반의 자료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독립리서치를 제도권 안으로 넣자는 논의가 당국 차원에서 이뤄지며 투자분석사 자격증을 지닌 사람만 보고서를 쓸 수 있게 하지는 말도 나왔지만, 아직 자격증이 없어도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독립리서치 시장에서 8년이라는 가장 오래된 업력을 지닌 리서치알음이 투자자문업 인가 취득에 성공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아닌 투자자문업자로서 독립리서치를 운영하는 또 다른 업계 최초 사례가 된다. 최 대표는 “리서치알음은 예나 지금이나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검증된 인력들이 리서치알음의 이름을 넣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금융·AI 결합 투자상품 내놓을 것 “아무도 시도하지 못한 일” 자부심 투자자문업 신청... 본격 투자유치

서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일에 도전하고 있다”며 “엄선한 ‘데이터 풀’을 학습한 AI가 자동 매매에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향후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 대표가 투자자문업 인가를 얻으려고 한 이유에는 AI 투자 사업 확장에만 있지 않다. 독립리서치 업계가 마주한 과거와는 다른 현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봤다.

최 대표는 한층 정확하고 균형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고자 등장한 독립리서치 업계가 그 취지와 벗어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목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유사투자자문업신

新냉전시대 글로벌 공급망 잡아야

미·중 간 무역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하마스의 이스라엘 인질사태로 인하여 세계가 새로운 냉전질서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고피나스 수석부총재는 이로 인한 “국제교역의 디커플링 심화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과 독일을 합친 만큼의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영국에서 발간되는 이코노미스트지 또한 올해 5월 11일 자에 게재한 ‘역행하는 세계화(globalization in reverse)’라는 특집에서 국제무역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7년 집권한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 알루미늄, 철강 등에 대해 25%에 달하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중국 또한 미국산 청바지, 랩스터 등의 수입에 대해 대응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에 돌입하였다.

미국의 이른바 ‘중국 때리기’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동맹규합을 통한 ‘중국 따돌리기’로 형태는 다르지만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제2의 냉전’으로 블록간 대결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WTO)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각국은 산업정책, 특히 보조금지급과 투자 제한 등 투자 관련 규제를 경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무역제재는 1990년대와 비교하여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서방세계가 가한 제재를 비롯해 미국의 대중국 기술굴기 특히, 반도체에 대한 제재와 유럽의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제 및 미국의 외국인투자위원회(CFI)에 의한 투자 규제로 인한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 2022년 286건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밀실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3년의 97건에 비해 3배에 이르는 수치였다.

주요국이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산업정책 수단들은 블록화된 경제에서 안정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차 세계대전 후 유럽에서 석탄과 철강에 대해 그랬던 것과 달리 이번 공급망 전

논현로

박노성

동국대 명예교수
Solbridge경영대학 석좌교수



략의 초점은 청정에너지, 전기자동차와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은 청정에너지와 반도체의 국내생산 지원을 위해 TSMC와 삼성전자 등 외국기업의 자국내 투자에 대해 각각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들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생산 지원은 미국 외에 유럽(Made in Europe), 인도(Make in India), 호주(A Future Made in Australia) 및 캐나다(Made-in-Canada plan)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자국내 투자에 대한 각국의 이러한 경쟁적인 지원은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을 초래해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경쟁적으로 도입, 시행 중인 대표적인 것으

경제 블록화로 국제무역질서 붕괴 세계각국 자국투자에 경쟁적 지원 미·유럽 향한 새 협력체제 구축을

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외에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이 있다. 이 같은 미국과 유럽의 여러 가지 지원법과 규제는 통상국가인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우리 기업에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요소수, 흑연과 니켈 등 소재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과 정부 차원의 새로운 협력 파트너십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원자재 관련 단일국가 의존도 규제조항(65% 미만)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국내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은 중국산이 아닌 역내 현지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내 활동하는 우리 기업 또한 IRA 및 반도체지원법이 규정하는 역내 혹은 우방국 조달 비중을 충족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한·미, 한·유럽 정부 간 새로운 협력체제를 시급히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 컷



아이들 믿음에 부끄럽지 않게...

국회 견학을 온 초등학생이 지역구의 한 의원에게 사인을 받고 있다. 본회의 참관 중인 학생들을 위해 의원이 인사차 방청석을 방문하자 아이는 유명 연예인을 본 듯 천진난만하게 무릎까지 굽혀 사인을 요청했다. 아이들이 방문한 지난달 27일은 여야 합의로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제22대 국회의 첫 출발을 알린 본회의

가 열렸다. 어제 열린 본회의에 아이아들이 왔다면 어땠을까. 여야 의원들 가릴 것 없이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전날에 이어 대정부 질문 역시 파행을 거듭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존경할 만한 인물이란 아이들의 믿음을 험오로 바꾸지 않길 바라며 삭막한 국회에서 그날의 장면을 기억해 본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사설

‘파행’ 최저임금추, 소상공인 고통 외면 말아야

내년 최저임금을 의결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했다. 앞서 2일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로 결정한 7차 회의 때 일부 근로자위원이 표결을 막겠다고 위원장 의사봉을 뺏고 투표용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 집단 보이콧을 불렀다.

7차 회의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여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됐다.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내년에도 모든 업종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폐업·경영 위기를 호소하는 절박한 목소리는 또 묻혀 버렸다. 노동계는 패배를 부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질수록 강압적 분위기를 빚는 것은 기존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자해행위에 가깝다. 딱한 일이다.

발등의 불은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 협상이다. 사용자위원이 복귀하면 노사 양측은 다음 주 9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공익위원들과 함께 본격 줄다리기를 벌인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역대 최악의 농작 심으로 물의를 빚은 지난해보다 더 느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이미 지난달에 만료됐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고시 시한인 다음달 5일을 준수하기 위한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5일 전후에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지만 낙관은 어렵다.

회의 구성원들은 소속에 관계없이 경제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

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잘못 다루면 사회적 속환이 되게 마련이다. 최저임금을 6470원(2017년)에서 9160원(2022년)으로 41.5% 급등시킨 전임 문재인 정부의 폭주가 다시 없는 반면교사다.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37.3%로 1년 전보다 6.1%포인트(p) 상승했다.

일자리도 줄어든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 시 응답자(복수응답)의 59%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자영업자 500명 대상 조사에선 48%의 응답자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 압박이 배가되면 어찌 되겠나.

의사결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이유가 차고 넘친다.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노사 갈등만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합의 형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7회에 그친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노사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정된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으라고 주문하는 것부터가 비현실적이다. 현행 구조에 크게 손을 댈 수 없다면 적어도 양대 총총 위주로 구성되는 근로자위원 자리를 청년·비정규직 등에게도 개방해 대표성 문제라도 해결해야 한다. 더 나은 대안도 없지는 않다. 정부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대안이다. 프랑스 등이 이렇게 하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결정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필요하다.

‘포스트대학’ 시즌1을 마치며

5월 말부터 격주로 ‘포스트대학’ 시리즈를 연재했다. 5일자 ‘동국대 드림페스트’ 5회차를 끝으로 시즌1을 마쳤다.

‘포스트대학’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뿐만 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 대학들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위기 극복을 위해 분투하는 학교 현장을 찾아 대학 관계자와 학생 등 구성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고려대, 서강대, 한국외국어대, 경희대를 찾아 각각 디자인조형학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Language & AI융합학부,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등 미래 수요에 맞는 특성화학과 또는 신설학과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고민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동국대는 학과가 아닌, 교과와 비교과 활동 전반에 대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 다뤘다.

기획 단계에서 ‘수험생이 해당 대학으로부터 가장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는 데 시간을 최대한 할애했다. 수험생 입장에서 ‘뉴스(News)’를 발굴하고자 했다. 대학도 한마음 한 뜻으로 해당 주제에 가장 적합한 대학 관계자와 재학생, 졸업생 현장 인터뷰 그리고 수업 및 실습에 대한 현장 취재를 기자와 함께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대학은 한국외국어대다. 어문·인문계열 대학으로 대표되는 한국외국어대가 인공지능(AI)까지 잡기 위해 ‘체질개선’에 돌입, ‘Language & AI융합학부’를 신설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과감한 학과 통폐합도 거쳤다. 신설

노트북 너머

손현경
사회경제부 기자



학부 정원은 기존의 12개 외국어 관련 유사학과(부)를 통폐합하거나 구조조정해 확보했다. 그 결과 2024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에서 133.14 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해 수험생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일부 기자들에게선 “고등교육 전문 기자도 아니고 교육부 기자인데 너무 대학만 몰두해 살펴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 아닌 지적을 받았을 땐 자괴감도 들기도 했다. 당시 의대 이슈 등 관련 교육 정책 현안이 생각보다 많았던 터라 후속 기사도 계속해서 터졌기 때문에 관련 기사를 소홀히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대학들은 확실히 미래 수요에 대응해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이 같은 변화는 교육기자에겐 놓쳐서는 안 될 취재거리였다.

한계점도 있었다. 한 곳의 대학을 다루되 그 대학이 다루고 있는 이슈를 좀 더 일반화할 수 있는 주제도 같이 다뤄주면 좋을 듯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2학기 ‘포스트대학’ 시즌2에서는 지역 대학 소재도 다뤄보려 한다. 생존과 변화를 위해 수많은 고민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대학들의 노력이 성공을 거두길 기대해 본다.

son89@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가전도, 이제 **구독**하는 시대.

냉장고부터 올레드TV, 워시타워까지!

이제 원하는 모든 가전을 구독으로 만나보세요

깨끗하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관리해주고,
거기에 든든한 무상보증까지-

가전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 LG전자 구독



LG전자 베스트샵 또는 LGE.COM에서 원하는 가전을 구독해 보세요

LG전자 구독 **subscribe**

* 제품별 계약조건에 따라 구독기간은 상이하며, 총 계약기간 동안 제품의 소유권은 회사에게 있음. 계약기간이 3년 이하 상품은 계약만료 후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4년 - 6년인 상품은 계약만료 후 제품 소유권이 고객에게 이전됨.